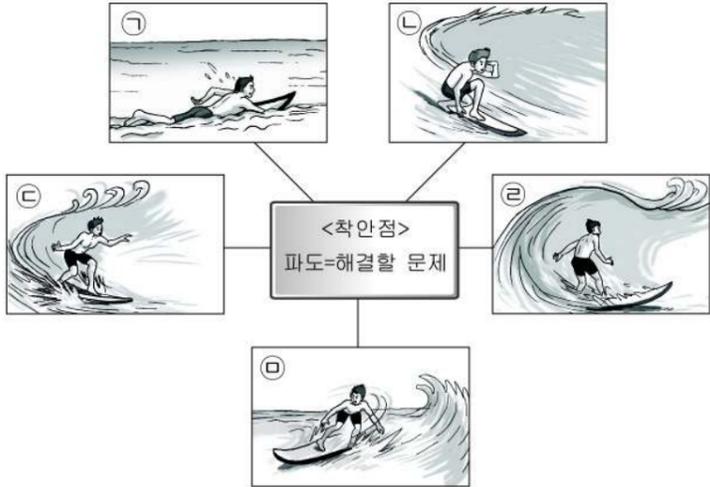




6. '파도타기'의 모습을 보고 '문제 해결의 과정'에 대해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자신이 타려는 파도가 치는 곳까지 헤엄쳐 나간다.  
→ 해결하려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직면해야 한다.
- ② ㉡ : 자신이 탈 수 있는 파도를 찾는다.  
→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탐색한다.
- ③ ㉢ :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어려운 문제는 일관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 ④ ㉣ : 파도의 움직임에 맞게 자세를 바꾸며 탄다.  
→ 문제의 성격에 따라 해결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 ⑤ ㉤ : 새로운 파도가 다가오면 방향을 바꾸어 다시 시도한다.  
→ 새로운 문제는 사고를 전환하여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7. 다음은 '건강 매점 운영'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조사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신문 보도  
○○시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영양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 매점 운영 지원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매점에서의 햄버거, 라면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과일류 등의 판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료 2> 통계 자료

식품	선호도 (%)
과일	35
채소	15
우유	10
탄산음료	75
패스트푸드	70
라면	75

연령	결식률 (%)
7~12세	14.2
13~19세	36.9

품목	비율 (%)
탄산음료	40.7
빵류	25.0
과자류	21.2
아이스크림	13.1

㉠ 청소년의 식품 선호도    ㉡ 아침 식사 결식률    ㉢ 매점구매 품목 비율

<자료 3> 연구 자료  
○ 청소년기의 불규칙적인 식사는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 청소년기에 잘못 형성된 식습관은 암, 당뇨 등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

- ① <자료 2>의 ㉡와 ㉢, <자료 3>을 활용하여,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청소년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다.
- ② <자료 1>, <자료 2>의 ㉡를 활용하여, 건강 매점을 통해 청소년 아침 식사 결식률을 줄일 수 있음을 건강 매점 도입의 취지로 삼는다.
- ③ <자료 1>, <자료 2>의 ㉡, ㉢를 활용하여, 매점에서 구매하는 품목이 권장식품이 아닌 것을 들어 판매 품목을 개선해야 함을 제시한다.
- ④ <자료 1>, <자료 3>을 활용하여, 건강 매점 운영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 ⑤ <자료 1>, <자료 2>의 ㉡, <자료 3>을 활용하여, 건강 매점 운영을 통해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한다.

8. <보기>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인터뷰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개요>의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보유자 :** 무형문화재는 형체가 있는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승되기 때문에 전승자가 없으면 춤이나 음악, 공예 기술 등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계승자들이 없어 직계가족에게 전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후계자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개 요 >

I. 서론  
무형문화재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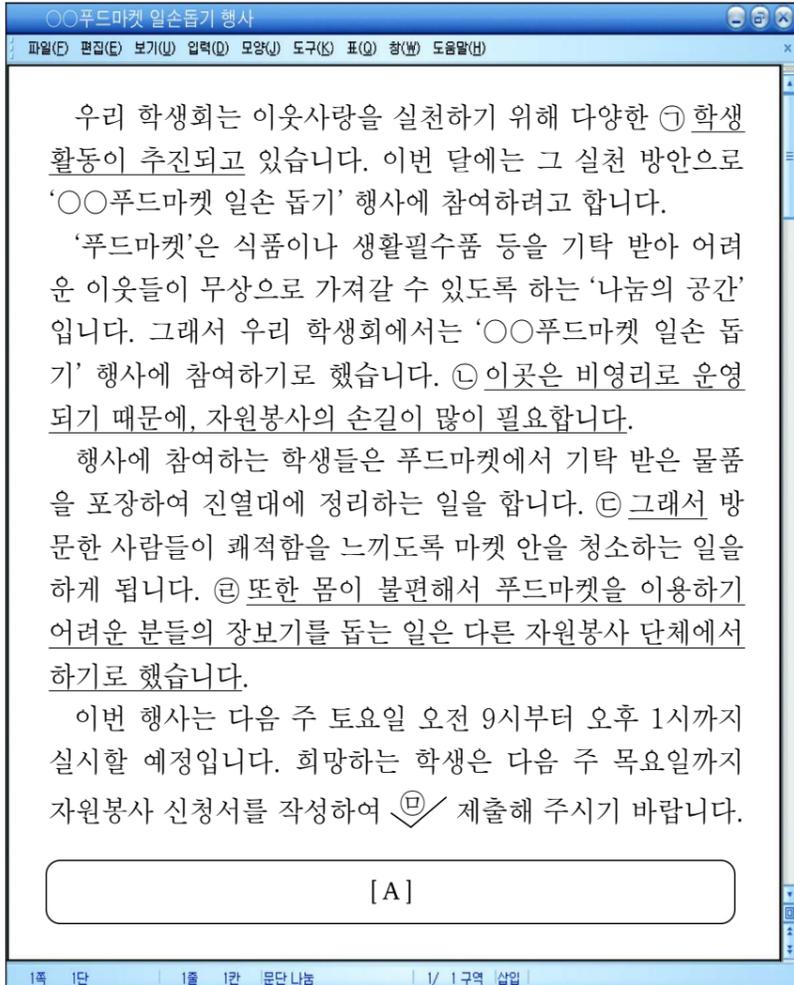
II. 무형문화재 전승의 문제점  
1.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보존 현황 ..... ㉠  
2. 전승 및 보존을 위한 경제적 지원 미흡 ..... ㉡  
3. 낮은 사회적 관심으로 인한 계승자 부족

III.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방안  
1. 무형문화재 전승교육 체계의 개선  
2. 직계 중심의 폐쇄적 전승 방식 ..... ㉢  
3. 사회적 관심 유발을 위한 홍보 ..... ㉣

IV. 제언 ..... ㉤

- ① ㉠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I'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② ㉡의 개선 방안으로, 'III'의 하위 항목에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지원금 인상'을 추가한다.
- ③ ㉢은 상위 항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II'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④ ㉣은 내용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재원 확보를 통한 무형 문화재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수정한다.
- ⑤ ㉤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및 제도적 보완책 마련'으로 구체화한다.

[9 ~ 10] 다음은 학생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는 글의 초고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9. ㉠ ~ ㉥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학생 활동을 추진하고'로 바꾼다.
- ② ㉡은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바로 앞의 문장과 맞바꾼다.
- ③ ㉢은 앞뒤 문장의 연결을 고려하여 '그리고'로 바꾼다.
- ④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⑤ ㉤에는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학생회에게'를 넣는다.

10. [A]에 자원봉사 참여를 홍보하기 위한 문구를 작성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표현한 것은?

< 보 기 >

- 활동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것
-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담을 것
- 대구와 비유를 사용할 것

- ① 머리로 아는 봉사, 몸으로 하는 봉사.  
봉사는 실천을 통해 함께 사는 삶을 가르쳐 주는 스승입니다.
- ② 나와 우리가 함께 할수록, 행복해지는 나눔의 공간.  
더불어 사는 공간에서 봉사의 정신을 실천합니다.
- ③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기쁨, 더불어 사는 삶의 풍요로움.  
행복으로 가는 길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④ 큰 강을 이루는 샘물의 힘, 행복의 산을 이루는 나눔의 손길.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배울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합니다.
- ⑤ 큰 사랑을 만드는 한 조각의 빵, 큰 행복을 만드는 한 사람의 손길.  
학생회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1.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에 대해 탐구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1>

- 한 주체가 하는 두 가지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 -고/고서 : 둘 이상의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의 '나열'이나 '선후'를 나타냄.
  - -며/면서 : 둘 이상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냄.

<보기2>

- ㄱ. 잔칫집에 가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다.
- ㄴ. 친구 집에 가서 못 다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서 왔다.
- ㄷ. 너무 아파서 줄곧 울며/울면서 왔다.
- ㄹ. 아이들은 함께 놀고, 공부도 함께 하며, 잠도 함께 잔다.

- ① ㄱ의 '-고'는 두 동작을 나열할 경우에 사용하는군.
- ② ㄴ의 '-고서'에는 동작의 선후가 나타나는군.
- ③ ㄱ, ㄴ의 '-고/고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는군.
- ④ ㄷ은 '-며'를 쓸 자리에 '-면서'를 쓰더라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군.
- ⑤ ㄹ의 '-고'와 '-며'는 셋 이상의 동작을 나열하는 경우 모두 동시성을 나타내고 있군.

12. <보기>는 '합성명사의 의미 변화 양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 보 기 >

- A+B → AB : 단순한 의미의 결합 ..... ㉠  
예) 눈+발 → 눈발
- A+B → AX/XB : 한 쪽에만 의미 변화가 나타남 ..... ㉡  
예) 불+호령 → 불호령
- A+B → XY : 제3의 의미가 생겨남 ..... ㉢  
예) 까치+발 → 까치발

- |   |      |      |      |
|---|------|------|------|
|   | ㉠    | ㉡    | ㉢    |
| ① | 칼집   | 돌부처  | 오누이  |
| ② | 쥐며느리 | 오누이  | 돌부처  |
| ③ | 비바람  | 칼집   | 벼락부자 |
| ④ | 오누이  | 벼락부자 | 쥐며느리 |
| ⑤ | 벼락부자 | 돌부처  | 비바람  |

[13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 아내와 어린것의 베갯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 이어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노신 : 중국의 작가(1881~1936). 20세기 초, 개혁적 지식인으로 중국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나)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좇듯

㉡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러라는 것이

- 나희덕, 「땅끝」

\* 땅끝 : 우리나라의 최남단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마을

(다)

초경(初更)도 거윈대 괴 엇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하기  
구차(苟且)한 줄 알건마난 쇼 업산 궁가(窮家)에 혜염 만하 왓삽노  
라. 공하니나 갑시나 주엄즉도 하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치\*(雉)를 옥지읍(玉脂泣)게 꾸어 내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를 취(醉)토록 권(勸)하거든 ㉣ 이러한 은혜(恩惠)  
를 어이 아니 갑홀넉고. 내일(來日)로 주마 하고 큰 언약(言約) 하  
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하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하면 혈마 어이할고. 현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  
피 물너오니 풍채(風彩) 저근 형용(形容)에 개 즈칠 뿐이로다.

㉤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랴. 북창(北窓)을 비  
겨 안자 새배랄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내 한(恨)  
을 도우나다. 종조추창(終朝惆悵)\*하며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는 농  
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나다. 세정(世情) 모란 한숨은 그칠 줄  
을 모라나다. 아까운 저 소위난 벗보님도 도할세고. 가시 영권 목은  
밭도 용이(容易)케 갈런마는, 허당반벽(虛堂半壁)에 슬디업시 걸려  
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던져 두자.

강호(江湖) 한 꿈을 꾸언 지도 오래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  
累)하야 어지머 이저떠다. 첩피기옥(瞻彼淇澳)혼대\*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대 하나 빌려사랴. 노하  
(蘆花) 김픈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님재 업산 풍월강  
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랴.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  
라 하며 말라 하랴. ㉦ 다토리 업슬산 다문 인가 너기로라.

- 박인로, 「누항사」

\* 수기치 : 장끼(수쟁)

\* 와실 : 달팽이 집, 작고 누추한 집

\* 종조추창 :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함

\* 첩피기옥혼대 : 저 물가를 바라보니

13.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 ② 화자가 회상의 방식으로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③ 화자가 특정한 경험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④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이 드러나 있다.
- ⑤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상 세계를 회구하고 있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청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한다.
- ②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심리 변화 양상을 드러낸다.
- ③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직접 나타낸다.
- ④ 의문형 어미를 통하여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보여준다.
- ⑤ 사물을 생명력 있는 대상으로 표현하여 시적 상황을 나타낸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가장(家長)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 ② ㉡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는 공간이다.
  - ③ ㉠과 ㉡은 모두 현실에서 화자가 고뇌하고 있는 공간이다.
  - ④ ㉠과 ㉡은 모두 지향하는 세계의 모습이 내재된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공간이다.

16. a ~ e 중, **노신**이 (가)의 화자에게 했음직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그네’의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의 활용은 삶의 순환성을 보여 준다.
  - ② 2연의 ‘어릴 때는’과 3연의 ‘이제’는 서로 대비되어 시간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 ③ 2연에서 살면서 서게 되는 ‘땅끝’은 ‘파도’와 ‘땅’의 관계를 통해 화자가 처한 현실의 의미를 보여준다.
  - ④ 2~3연에서 ‘뒷걸음질’의 반복으로 화자의 절박함이 강조된다.
  - ⑤ 4연의 ‘그런데’는 ‘땅의 끝’과 ‘땅끝’에 주목하게 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당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대화 형식의 말투를 받아들여 임진왜란 이후의 변화된 사회상을 담고 있다. 특히 신분제 동요, 양반의 경제적 몰락, 실리를 추구하는 민중의 면모 등 사회적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조선 전기부터 양반들이 지향하던 관념적인 삶의 모습도 보여준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 ① ‘쇼 업산 궁가’의 화자가 이웃집 소 주인에게 소를 빌리러 간다는 사실에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님재 업산 풍월강산애 절로절로 늘그리라.’에서 조선 전기의 양반들이 추구하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③ ‘후리쳐 던져 두자.’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신분제의 동요와 혼란한 사회상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 있다.
- ④ ‘초경도 거원대~’부터 ‘~혈마 어이할고.’까지는 조선 전기 가사와 달리 실생활에서 사용한 대화 형식의 말투가 나타나 있다.
- ⑤ ‘목 불근 수기치’와 ‘삼해주’를 제공받고 소를 빌려 주려는 소 주인의 모습에서 실리(實利)를 중시하는 민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일한 장면에 대하여 화자는 몇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언어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장면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대안적 사고라 하는데, 이것은 화자가 장면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면의 ‘해석’은 장면을 개념화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화자의 선택을 가리키며,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관련한 인지 능력의 발현이다.

그러면 장면이나 상황의 해석에 작용하는 인지 능력 기제인 ‘특정성’과 ‘시점’을 중심으로 장면에 나타나는 해석의 양상을 살펴보자. 한 가지 장면을 다양한 정도의 층위에서 파악하는 ‘특정성’은 주로 계층 관계에서 작용한다. 해당 장면을 상위 층위에 가깝게 파악할 때는 그 해석이 추상적이며, 하위 층위에 가깝게 파악할 때는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작동한다.

- (1) a. 대문 앞에 누군가가 있다.
- b. 대문 앞에 키가 큰 청년이 서 있다.

(1)은 동일한 장면을 기술한 것인데, 이들 표현은 ‘특정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a에서 화자는 인물의 특성에 주목하지 않은 채 ‘누군가’로 해석하고 있으며, b는 a와 달리 인물의 ‘키가 큰’ 특성에 주목하여 장면을 해석한 것이다. 이와 같이 화자는 해당 장면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특정성’의 층위를 조절하고 선택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장면에 대하여 화자가 어떤 ‘시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장면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 경우 ‘시점’이란 화자가 장면의 해석에서 취하는 관점이나 입장을 뜻한다. 화자의 ‘시점’에 관련된 요소로 ‘객관성’과 ‘주관성’은 하나의 장면에서 화자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 객관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는 주관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 화자로부터 분리된 장면의 해석을 ‘객관성’이라 하고, 화자가 포함된 장면의 해석을 ‘주관성’이라고 한다.

- (2) “너는 엄마가 돈 만드는 기계로 보이니?”
- (3) “너는 내가 돈 만드는 기계로 보이니?”

(2)와 (3)은 용돈을 거둬 요구하는 아이에게 화난 어머니가 사용한 표현으로서, ‘엄마’와 ‘나’는 동일 인물이다. 그런데 (3)은 화자가 묘사하는 장면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주관적인 해석을 취하고 있으나, (2)는 화자가 자신을 상위층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묘사하는 장면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객관적 해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주관적, 객관적 ‘시점’의 선택에는 화자의 해석이 작용하고 있다.

결국 장면의 의미란 객관적 대상의 개념적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 주체의 ‘해석’을 망라한 것이다.

19. 위 글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언어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산물이다.
- ② 언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대상이다.
- ③ 언어는 사회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 ④ 언어는 소리의 체계와 의미의 체계로 분리할 수 있다.
- ⑤ 언어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은 ㄴ, ㄷ보다 장면을 상위 층위에서 파악한 것이다.
- ② ㄴ은 ㄱ과 달리 인물의 특성에 주목하여 해석한 것이다.
- ③ ㄷ은 ㄱ, ㄴ보다 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해석한 것이다.
- ④ ㄴ, ㄷ은 ㄱ보다 화자가 장면을 주체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 ⑤ ㄱ~ㄷ은 장면을 표현하기 위한 대안적 방식에 해당한다.

21.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생님이 학생에게) 선생님도 수박이 좋단다.
- ② (아빠가 딸에게) 아빠는 유경이가 정말 예쁘다.
- ③ (딸이 엄마에게) 엄마, 딸은 아빠가 보고 싶어요.
- ④ (삼촌이 조카에게) 삼촌은 네가 꼭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⑤ (손자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는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예요.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석양이 오빠의 이마와 목덜미를 붉게 물들이며 방을 깊숙이 가로 질렀다.

㉠ 내가 기억하는 한의 그 시간은 늘 그랬다.

함석지붕이 흐를 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저녁 햇빛이 칼처럼 방 안에 깊숙이 쬐힐 즈음이면 어머니는 화장을 시작하고 오빠는 창가에 놓인, 붉은 꽃무늬의 도베지 바른 퀘짜 앞에 앉아 꼼짝 않고 소리 높여 영어책을 읽었다. 나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갖가지 화장품이 담긴 병들을 만지작거리거나 창을 통해서 멀찍이 보이는 개울의 다리와 신작로, 그리고 더 멀리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국민학교의 창을, 점점이 붉은빛이 물어나는 새털구름들을 바라보며 이유가 분명치 않은 조바심으로 어머니와 오빠 사이의, 은밀히 조성되어 가는 팽팽한 공기를 지켜보았다.

캔 유 텔 미 핫 히 이즈 두잉? 오빠가 받은기침으로 목청을 돋우었다. 과마한 머리칼이 얽혀있는지, 신경질적인 손놀림으로 빠르게 빗질을 하던 어머니가 손을 멈추고 거울에 바짝 머리를 들이대었다. 흰 머리가 뿔혀 나왔다.

벽에 버티어 놓은 거울에, 등지고 앉은 오빠의 몸이 고집스럽게 담겨 있었다. 뿔혀 나온 새치를 손가락 사이에 들고 잠시 들여다보던 어머니가 햇빛을 피하는 시늉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거울을 옮겨 놓고 화장을 계속했다. 나무궤 위에 쌓아 놓은 우리들의 때 묻은 이부자리가 거울면에 들이쳤다. 오빠의 모습은 사라졌다. 대신 거친 손짓으로 책장을 넘기는 바람에 날고 녹록해진 종이가 힘들게 찢겨지는 소리가 났다. 오빠의, 긴장으로 경직된 등이 제풀에 움찔했다.

어머니는 **등 뒤의 작은 시위** — 그러나 오빠 나름대로는 필사적인 — 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첩**으로 탁탁 얼굴을 두들기고 가늘고 둥글게 눈썹을 그렸다. ㉡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오빠를 번갈아 보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호기심과 찬탄으로 거울 속에서 점차 나팔꽃처럼 보얗게 피어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시집을 때 해왔다는 등신대(等身大)의 거울은 이 방에서 유일하게 흠 없이 온전하고 훌륭한 물건이었다.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남루해져 가는 우리들의 가운데서 거울은, 어머니가 매일 닦는 탓도 있지만, 나날이 새롭게 번쩍이며 한구석에 버티고 있었다. 그 이물감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실체보다 훨씬 더 커보이는 건지도 몰랐다.

거울 속에는 언제나 좁은 방 안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소꿉놀이를 하다가도, 게으르게 눈을 깜빡이며 잠에서 깨어나 [A] 서도, 싸움질을 하다가도,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도 문득 눈을 들면 방의 한구석에 버티어 선 거울이 자신은 볼 수 없는 등까지도 환히 비추는 바람에, 우리는 거울 속에서 낯설게 만나지는 자신에게 경원과 면구스러움을 느껴 옆으로 슬쩍 비켜서거나 남의 얼굴처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거울은 기울여 놓기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작게도 크게도 길게도 짧게도 자유자재로 바꾸어 비추었다. 언니와 나는 어머니가 없을 때면 끽끔대며 거울을 옮겨 놓고 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연극놀이를 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연극놀이를 했는데 내용은 늘 똑같았다.

(중략)

나는 낮의 일들이 꼭 꿈속의 일처럼 아주 몽롱하고 멀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밤마다 술 취해 오는 어머니**, ㉢ 더러운 이불 속에서 쥐처럼 손가락을 빨아 대는 일 따위가 한바탕의 긴 꿈만 같이 여겨졌다. 진짜의 나는 안타까이 더듬어 보는 먼 기억의 갈피 짬에서 단편적인 감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키가 몹시 컸다. 아니 그것은 덩치 큰 오빠를 향해 하던, 아버지를 쏙 빼었다는 할머니의 말에서 비롯된 연상인지도 몰랐다.

저녁을 먹은 후 바람이 서늘해지면 아버지는 나를 목에 태우고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의 무릎을 타면 어찌나 높던지 나 자신 풍선처럼 공중에 등실 떠오르듯 눈앞이 어지러이 흔들렸다.

곧 동생이 태어날 거다. 아버지는 내 넓적다리를 짹 쥐며 노래 부르듯 말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었단다.

꼭 잡아, ㉣ 아버지의 말에 따라 아버지의 머리를 잡으면 손에서는 쩌쩍쩍한 머릿기름이 묻어났다.

아버지는 내게 연약한 넓적다리, 혹은 발목을 잡던 악력(握力), 막연히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 보다 커다란 것, 땀으로 젖어 있던 등허리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억 역시 내 상상이 꾸며 낸

더 먼 꿈속의 일은 아니었을까.

전쟁이 끝나면 아버지가 돌아온다. 두 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정다운 기억, 희망 없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 얼마쯤의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매일 술취해 돌아오는 어머니를 향해, 다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차갑게 협박하는 오빠까지도.

우리가 입자 없는 닭의 맛에 길들여지듯, 어머니의 지갑을 더듬는 손길이 점차 담대해지고 빼내는 돈의 액수가 많아지듯, 할머니가 단 말마의 비명도 없이 도살(屠殺)의 비기(秘技)를 익혀 가듯, 그리고 종내는 눈의 정기만으로도 닭들이 스스로 죽지 밑에 고개를 묻고 너부러지듯 아버지 역시 달라져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 있던 그 긴 시간의 갈피 짬마다 연기처럼 모호히 서린 낯설음은 새로운 전쟁으로 우리 사이에 재연(再燃)될 것이기에 차라리 그립고 정답게 아버지를 추억하며 희망 없는 기다림으로 ㉔ 우리 모두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거나 돌아오지 않을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변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나 아니었는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부터 들려 오는 대포 소리는 고즈넉이 가라앉은 이 마을에 문득 전쟁을 상기시켰고, 드문드문 흘러드는 피난민들은 아직도 바깥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오정희, 「유년의 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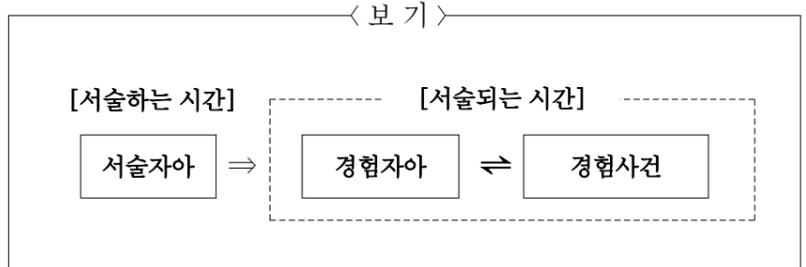
2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 ② 인물 심리의 변화를 통해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자연의 변화 과정을 세밀히 묘사하여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④ 비유적 수식어의 사용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시대 배경의 사실적 제시로 현실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3. **등 뒤의 작은 시위**와 관련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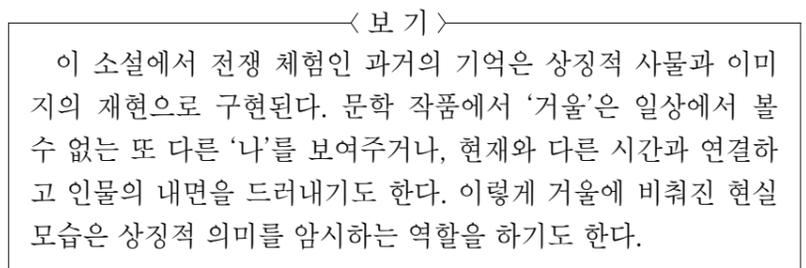
- ① '붉은빛이 묻어나는 새털구름들을 바라'보는 것은 어머니와 오빠의 갈등에 대해 무관심한 나의 태도를 보여준다.
- ② '은밀히 조성되어 가는 팽팽한 공기'는 오빠와 어머니의 긴장된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다.
- ③ '거친 손짓으로 책장을 넘기는' 행위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다.
- ④ '신경질적인 손놀림'과 '아랑곳 하지 않고 분첩'을 두드리는 행위는 어머니의 심적 상태를 보여준다.
- ⑤ '밤마다 술 취해 오는 어머니'는 오빠의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한 원인의 하나이다.

24. 위 글의 서사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㉑ ~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내'는 '서술자아'를, '그 시간'은 '서술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 ② ㉒ : '나'는 '경험사건'을 노출시키고 있는 '서술자아'이다.
- ③ ㉓ : '손가락을 빨아대는 일'은 '경험자아'의 '경험사건'이다.
- ④ ㉔ : 아버지가 부재하는 '서술되는 시간' 이전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한 회상이다.
- ⑤ ㉔ : '서술되는 시간'의 인물들의 심정에 대한 '서술자아'의 서술이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A]에서 '거울'의 서사적 의미를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날이 새롭게 번쩍이며 한구석에 버티고' 서있는 거울은 피난지 현실의 남루함을 부각시킨다.
- ② '언제나 좁은 방 안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은 초라한 삶이 거울을 통해 이미지화된 것을 암시한다.
- ③ '자신은 볼 수 없는 등까지도 환히 비추는' 거울은 일상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는 매개이다.
- ④ 거울 속에서 '낯설게 만나지는 자신'은 자신과 대면하였을 때의 느낌을 나타낸다.
- ⑤ '기울여 놓기에 따라'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어' 비추는 거울은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의지를 드러낸다.

[26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誠)’은 하늘의 도리이며, 인간은 하늘의 도리인 성실함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유학에서 제시한 ‘택선고집(擇善固執)’은 개인의 내면적 충실을 강조한 인격 수양의 한 방법으로 하늘의 도리인 ‘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 ‘택선’이란 선(善)을 택하는 것이고, ‘고집’이란 그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내재한 본성을 자각하는 인식의 단계를 의미하고, 굳게 ㉡ 지킨다는 것은 자각한 본성을 행동에 옮기는 실천의 단계를 뜻한다.

㉢ ‘신독(慎獨)’도 개인의 내면적 충실을 강조한 유학의 덕목으로,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가는 것이다. 『대학』에서 ‘이른바 뜻을 성실하게 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니, 인간은 스스로의 만족을 얻기 위한 수양에 힘을 기울여,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나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용』에서도 ‘숨은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조심한다.’고 하여, ㉣ 개인의 수양을 강조한다. 즉, 신독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자기에게 충실하여 내면적으로 실천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독은 개인 윤리이면서 동시에 ‘안으로 성실하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사회 윤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 자각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개인 윤리로 ‘충서(忠恕)’가 있다. 충서란 공자의 모든 사상을 꿰뚫고 있는 도리로서, 인간 개인의 자아 확립과 이를 통한 만물일체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이때, ㉤ ‘충(忠)’이란 ‘중심(中心)’이다. 주희는 충을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충실을 의미한다. 이는 자아의 확립이며, 본성에 대한 깨달음이다. 또한, ㉥ ‘서(恕)’란 ‘여심(如心)’이다. 내 마음과 같이 한다는 말이다. 공자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내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게 하라.’고 하였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어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남들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즉,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지닌 상태가 ‘서’의 상태인 것이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이다.

택선고집, 신독, 충서는 먼저 인간의 천부적인 도덕성을 자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론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도덕적 실천의 근원을 하늘에 두고, 이 하늘의 도리인 성(誠)을 인간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2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은 선(善)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 ② 인간의 도리는 형식을 지키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 ③ 하늘의 도리를 본받는 것은 선을 실행하는 것이다.
- ④ 본성을 자각하는 것은 윤리적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
- ⑤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본성에 충실해야 한다.

27. ㉠ ~ ㉥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보기 〉

최근 화합의 노사 관계를 선보인 ○○기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임금 동결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신문 기사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8. <보기>는 ‘공자’와 그의 제자인 ‘자로’의 대화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자로 : 군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자 : 자기 수양을 통해 경건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자로 :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공자 : 자기 수양을 하고 나서는 남을 편안히 해 주어야 한다.  
자로 :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공자 : 자기 수양을 하고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 ① ‘자기 수양’을 위한 방법에는 ‘택선고집’이 있겠군.
- ② ‘남을 편안히 함’은 ‘충서’의 실천 상태라고 할 수 있군.
- ③ ‘군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군.
- ④ ‘공자’는 인격 수양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군.
- ⑤ ‘자기 수양을 통한 경건함’은 ‘신독’의 실천 상태라고 할 수 있겠군.

29. ㉡와 관련하여 ‘지키다’가 쓰인 다양한 예문을 찾아보았다. 각 예문에 쓰인 ‘지키다’의 유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통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 준수(遵守)하다]
- ② 심판은 경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 유지(維持)하다]
- ③ 군인들은 목숨을 다해 조국을 지켰다. [⇒ 수호(守護)하다]
- ④ 경비병들이 국경을 삼엄하게 지켰다. [⇒ 경계(警戒)하다]
- ⑤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 보존(保存)하다]

[30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석탄은 석유에 비해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가채 연수가 140년 이상 남아 있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청정 석탄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석탄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청정 석탄 기술이란, 석탄 사용 시 유해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중 ㉠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IGCC)은 석탄을 가스화한 뒤 가스 터빈과 증기 터빈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사이클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IGCC는 석탄 가스화 장치, 가스 정제 장치, 가스 터빈 및 증기 터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GCC의 공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석탄 가스화 장치에서 고분자 상태의 천연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불완전 연소시켜 발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가연성 기체로 변환시킨다. 원료 석탄을 분쇄한 후, 석탄을 가스화하기 위해 가스화제(공기·산소)와 함께 석탄 가스화 장치로 공급하면, 산화·환원 반응에 의하여 주성분이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이루어진 연료 가스가 생산된다. 생산된 연료 가스에는 분진, 황 화합물, 산성 가스 등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가스 터빈을 비롯한 기기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따라서 가스 정제 장치를 거쳐 이러한 유해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약품, 화학 등의 산업 원료로 사용되는 순수 유황이 부산물로 생성된다. 정제된 연료 가스는 가스 터빈으로 유입되어 1차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쓰인다. 이러한 1차 발전 단계 이후 가스 터빈에서 발생한 열을 재활용해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것으로 증기 터빈을 돌려 2차 전력을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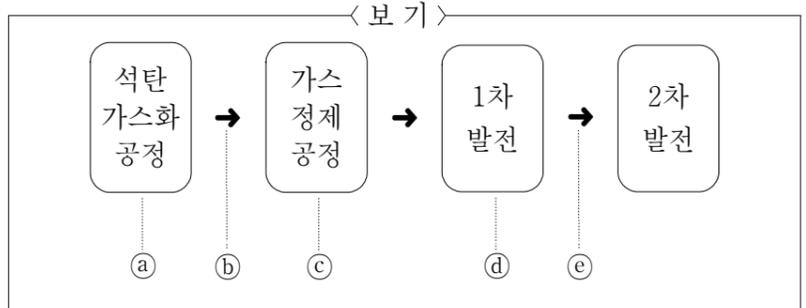
IGCC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2차에 걸쳐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석탄을 직접 태워서 전력을 생산하는 ㉡ 미분탄 화력 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IGCC는 가스화된 석탄이 연소되기 전에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공정을 사용하는데, 이는 석탄을 연소한 후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미분탄 화력 발전보다 용이한 방식이다. 때문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90% 이상을 제거할 수 있어 차세대 석탄 발전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IGCC는 설비가 복잡하여 기존 방식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만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해 추가되는 비용은 적으므로 총 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30.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석탄의 과거와 미래
  - 새로운 기술 개발의 연구 성과와 전망
- ② 석탄 활용 방식의 변화
  - 석탄에 대한 재인식과 가치의 발견
- ③ 차세대 석탄 발전의 방향 모색
  - 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 개발
- ④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의 특징
  - 에너지 효율성과 오염 물질 배출 감소
- ⑤ 석탄 가스화 발전 방식의 적용 실태
  - 화학적 방법을 활용한 발전 방식

31. <보기>는 IGCC의 공정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a : 원료 석탄을 가스화제와 반응시켜 연료 가스를 만든다.
- ② ㉠ b : 산업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연료 가스에서 분리된다.
- ③ ㉠ c : 탈황, 집진 등의 과정을 거쳐 정제된 연료 가스를 만든다.
- ④ ㉠ d : 정제된 연료 가스를 활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 ⑤ ㉠ e : 가스 터빈에서 방출되는 열로 수증기를 만든다.

32.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교 항목	㉠	㉡
①	발전 연료	가스화된 석탄	천연 석탄
②	에너지 효율	높다	낮다
③	설비 구성 요소	단순하다	복잡하다
④	이산화탄소 제거 비율	높다	낮다
⑤	초기 투자비용	크다	적다

[33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날 밤 삼경 즈음에 함성이 대진하거늘 경업이 놀라서 잠을 깨어 보니 무수한 호선(胡船)이 사면으로 에워싸고 큰 소리로,

“장군을 기다린 지 오랜지라, 바빠 항복하여 죽기를 면하라.”

하거늘 경업이 대노하여 독부를 찾으니, 이미 간 데 없는지라 불승분노(不勝忿怒)하여 망지소조(罔知所措)\*라, 호군이 철통같이 포위하고, 잡으라 하는 소리 진동하거늘 경업이 대노하여 용력을 다하여 대적하고자 하나, ㉠ 망망대해에 다만 단검으로 무수한 호병을 어찌 대적하리요. 전선에 뛰어올라 좌충우돌하여 호군을 무수히 죽이고 피코자 하는데 기력이 점점 쇠진하여 아무리 용맹한들 천수를 어찌 도망하리요. 필경 호병에게 잡히니 호병이 배를 재촉하여 북경지경에 다다르니, 호왕이 크게 기뻐하여 삼십 리에 창검을 벌려 세우고, 경업을 잡아들여 꾸짖으니 경업이 조금도 겁냄이 없이 도리어 대들어 말하기를,

“이 무도한 오랑캐 놈아, 내 비록 잡혀 왔으나 너희 알기를 초개(草芥)같이 아나니, 죽이려거든 지체하지 말라.”

하거늘 호왕이 대노하여,

“병자년에 네 나라를 항복받고 돌아왔거늘 네 어찌 내 군사를 죽이며 네 청병으로 왔을 적에 내 군사를 해하였기로 문죄하고자 하여 사자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였거늘 네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감은 무슨 뜻이뇨?”

경업이 소리쳐 말하기를,

[A] “내 나라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자 하거늘 너희 간계로 우리 임금을 겁박하고 세자와 대군을 잡아가니 그 통분함을 어찌 참으리요.

그러므로 네 장졸을 다 죽이려 하다가 왕명 때문에 용서하였거늘 네 그토록 교만하여 피섬을 치라 할 제 네게 부린 바 되니 왕명이 지중하기로 마지못하여 왔으나 네 군사를 남기지 아니하려다가 십분 참고 그 길로 돌아갔거늘 네 이제 목숨을 먹고 나를 해하여 하기로 잡혀 오다가 중로에서 도망하여 남경으로 들어가 합심하여 북경을 쳐서 네 머리를 베어 종묘에 제(祭)하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 가려 하였더니, 불의에 이 지경을 다하니 이는 천만 의외로 어찌 죽기를 아끼리요. 속히 죽여 나의 충의(忠義)를 나타내라.”

하니 호왕이 대노하여 이르기를,

“네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종시 굴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

경업이 가로되,

“병자년에 우리 주상이 종사(宗社)를 위하여 네게 항복하셨거니와 내 어찌 몸을 위하여 네게 항복하리요.”

하니 호왕이 분통이 터져 군사에게 명하여,

“내어 베라.”

하니 경업이 대꾸하여,

“내 명은 하늘에 있거니와 네 머리는 십보지하에 있느니라.”

하고 안색도 변하지 않고 무사를 보며, 바빠 죽이라 하니, 호왕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탄복하여, 묶은 것을 풀고 손으로 이끌어 올려 앉히고 말하기를,

“장군이 내게는 역신(逆臣)이나 조선에는 충신(忠臣)이라. 내 어찌 충절을 해하리요. 장군의 원대로 하리라.”

하며,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하더라.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시면서 임장군을 주야로 기다리는데, 문득 문 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고하되 임장군이 천자께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낸다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기뻐하며 궁문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가 경업이 와서 울며 절하되,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왕을 뵈오니 호왕이 이르기를,

“경 등을 임경업이 생사 불구하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내 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경 등을 보내노니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 정을 표하리라.”

하거늘 세자는 금은(金銀)을 청하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 온 사람을 청하여 쉬이 돌아가기를 원하니 호왕이 각각 원대로 하라 하고 대군을 기특히 여기더라. 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뒤희고 나와 하직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울며 말하기를,

“장군의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거니와 장군을 두고 가니 마음이 어두운지라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바라건대 장군도 쉬이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하니 경업이 대답하기를,

[B] “하늘이 도와 세자와 대군이 고국에 돌아가시니 불승만행이오 나, 모시고 가지 못하오니 가슴 아픔을 어찌 측량하오리까.”

하니 세자가 가로되,

“장군과 동행하지 못하니 결연함이 비할 데 없는지라, 중로에서 기다릴 것이니 속히 돌아오음을 주선하라.”

하니 경업이 탄식하며,

“바라건대 지체하지 마시고 바빠 가시면 신도 머지않아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소서.”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경업과 이별하고 출발하여 백두산 아래 이르러 조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기를,

“임 장군이 아니었던들 우리를 위하여 만리 타국에 죽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 뉘 있으며 우리를 보내고 장군은 돌아오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명천(明天)이 도와 쉬이 돌아오게 하소서.”

하더라.

- 작가 미상, 「임경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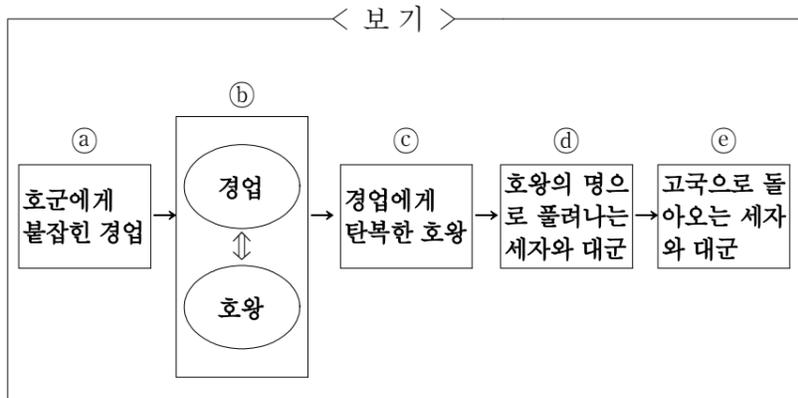
\* 망지소조(罔知所措) : 어찌할 바를 모름

3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
- ② 율문투를 사용하여 비극적 심리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성격을 직접 논평하고 있다.
- ④ 배경을 치밀하게 묘사하여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사실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3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B]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 있다.
  - ② [A]와 달리 [B]에서는 초월적 존재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 ③ [A]에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B]에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나타나 있다.
  - ④ [A]와 [B]에는 모두 인물의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
  - ⑤ [A]와 [B]에는 모두 신하로서의 본분을 지키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35. <보기>는 위 글의 사건을 도식화한 것이다.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인물 간 갈등은 ㉢에서 해소되고 있다.
- ② ㉡에서 ㉣는 공간 이동이 없으나, ㉣에서 ㉤는 공간 이동이 있다.
- ③ ㉡의 대화 상황에는 ㉠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이 나타나 있다.
- ④ ㉡에서의 적대자가 ㉣에서는 주인공의 소망을 들어주는 조력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 ⑤ ㉠~㉤는 시간적 순서로 배열되어 사건의 인과성을 보이고 있다.

36. ㉠의 '임경업'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과부적(衆寡不敵)                      ② 점입가경(漸入佳境)
-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④ 오월동주(吳越同舟)
- ⑤ 다기망양(多岐亡羊)

[37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화사적으로 공재 윤두서의 면모를 드높여주는 것은 서민을 소재로 한 ㉠ 속화(俗畵)이다. 그는 선비나 신선 아니면 미인 정도가 나오던 조선 전기 ㉡ 회화에서 벗어나 현실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전면에 등장시켰다. 이렇게 '서민'이 선비나 신선의 자리를 밀어내고 화폭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된 것은 회화적 혁명으로 볼 수 있다.

회화에서 화가가 그림의 소재로 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공재는 일하는 서민들을 직접 관찰한 후, 몸동작이나 얼굴 표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섬세한 붓끝으로 화폭에 담아냈다. 이는 몸으로 체득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사실주의 정신 내지는 실학 정신과 관련된다.



공재의 그림 <돌 깨는 석공>에는 망치를 든 석공이 돌을 깨려는 순간, 정(釘)을 잡은 석공은 얼굴에 파편이 튕까봐 몸을 뒤로 기울이며 눈을 찡그리고 있는 표정이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그림의 배경은 채석장이 아니라 선비나 신선이 있었음직한 산수화의 배경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공재의 그림은 배경 처리가 여전히 비현실적이어서 조선 후기 김홍도나 신윤복의 속화만큼 박진감은 못

그림 <돌 깨는 석공> 도나 신윤복의 속화만큼 박진감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공재의 이러한

그림의 특징은 '현실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현실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이 현실의 한 장면을 잡아내어 이를 그림으로 표현했다면, 공재는 기존의 그림 속에 현실을 삽입시켜 전통 회화의 틀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성을 구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런 방식은 18세기 사실주의 회화의 관점에서는 다소 미흡해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현실 인식을 그림 속에 반영하려 한 것이 공재의 사실주의 정신인 것이다.

그의 그림의 또 다른 특징은 ㉠ '자기화(自己化)'에 있다. 공재는 상당히 많은 화보(畵譜)\*를 보고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 화보에 담긴 그림을 무작정 그대로 베껴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자기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의 『고씨화보』에 있는 <주상오수(舟上午睡)>라는 그림은 한 인물이 배를 타고 강변 절벽에 솟아오른 소나무 그늘 아래 낮잠을 즐기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그런데 공재는 이 그림에서 소나무의 표현만을 빌어 왔을 뿐, 자신의 그림인 <송하한담도>에서는 배경을 강이 아닌 산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변용하였다. 이는 화원의 그림처럼 겉모습을 따라 그리기 기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시대의 흐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18세기 사실주의 회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 화보: 여러 그림을 모아 만든 책

37.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③ 대상이 지닌 특징을 다른 대상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다.
- ④ 시대에 따라 대상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여 독자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3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모습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공재의 인물 표현 방식과 유사하군.
- ② 공재의 속화처럼 이 그림도 서민에 대한 애정이 바탕을 이루고 있겠군.
- ③ 배경을 생략하여 인물에 집중하도록 한 것은 조선 전기의 화풍을 계승한 것이군.
- ④ 전통 회화 속에 현실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군.
- ⑤ 일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것은 공재의 회화 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군.

39.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의도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는 것이다.
- ② 대상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 ③ 화본의 그림을 충실히 모방하여 자기 것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 ④ 다양한 회화 기법을 익혀 대상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것이다.
- ⑤ 자신의 내면보다는 외부 세계의 세밀한 표현을 중시하는 것이다.

40. ㉠ : ㉡의 의미 관계와 유사한 것은? [1점]

- ① 그의 생각은 늘 기발하고 찰신하다.
- ② 판소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③ 번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숲 속을 걷고 싶다.
- ④ 속박과 질곡 속에서 걸어온 나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⑤ 과거의 잘못을 달수하지 않기 위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거북 하선생, 나는 이번 수해에 관해선 다소 견해가 다르오.  
 동정 다르시다니요?  
 거북 이번 수해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시련이었다구 생각하오. 그렇게 산에 나무를 이발하듯 바다 뗏으니, 수해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있겠소? 이번에 뼈아픈 경험을 해야만 [A] 또다시 나무를 비지 않을 거요. 그러니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구조는 안하는 게 좋 듯 싶소.

동정 나무를 많이 빈 것이 이번 재해의 크나큰 원인의 하나이긴 하지만, 나무를 우리가 안 빌래야 안 빌 수 있었습니까? 일 년에 우리 군에 할당된 송탄유 공출량이 몇 석이었습니까? 가뜩 없는 산에서 대동아전쟁 기간 중 사 년을 두구 그 군용재와 송탄유재를 비어냈으니, 탓을 하신다면 공출을 강압한 일제와 그의 앞잡이 군수, 서기놈들을 하셔야지. 무고한 이재민들한테 하실 건 아니라구 생각합니다.

거북 거지는 나라두 못 구한다구 했소.  
 동정 그야 전적으로 구할 수는 없겠지요. 허지만 당장의 연명을 하는 동안 앞이 또 트일 게 아닙니까? 그러구 이번 수해 동포들이란 거지와는 전연 성능이 다를 것입니다. 이 고경(苦境)만 넘겨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력으로 생계를 이어 나갈 거예요.

거북 하 선생, 나는 돈이 아깝거나 또는 내놓기 싫어서 이러 [B] 는 건 아니요. 털어 놓구 얘기하면 돈이 없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현금이 없소.  
 동정 현금, 아니라두 괜찮습니다. 동정을 표시하시면 그만이니까, 현 옷이나 이불 샴스 같은 거라두.....

거북 내 생활이 근검절약주의라, 뭐 한 가지 여별이라군 우리 [C] 집에 없소.  
 동정 정 그러시다면, 저 행자나무라두.....

거북 (필쩍 뛰며 기성(奇聲)에 가까운 소리를 발한다.) 해, 행자 나무를요?  
 동정 (태연히) 네, 저 나무는 작년 이맘때 수국아버지께서 자진해서 해군에 공출하기루 하셨든 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서울 해군 무관부에서 소위가 내려왔구, 역장 군수, 경찰서장을 위시해서 군관민이 전부 나와 이 나무의 장행(壯行)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막 빌려구 하든 참에 역사적인 일황의 정전방송이 있어, 군함재료로의 공출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공출하신 셈 치구, 기부해 주십쇼. 새로운 시대에의 온갖 장애물인 일제의 잔재를 뿌리째 뽑아 버리는 것두 될 겐,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거북 하선생, 저 나무는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라를 위 [D] 해서 유익히 쓰도록 하라고, 아버님께 유언하신 나무요.  
 동정 그 유언을 아버님께서 수국아버지한테 계승시키시고 돌아가신 건 아마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겐니다. 허지만 수국아버지께서, 작년 공출을 자진 신청하실 때두 군수와 서장한테 나라를 위해 써 달라구 하시지 안했습니까?  
 거북 그, 그 땐 어떤 게 내 나란지 사실 분간을 못했었소. 허지만 이렇게 해방이 돼서, 내선일체란 셋빨간 거짓말이구, 우리는 걸

코 일본놈의 황국신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소.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우리 대한 나라를 위해서 쓸 작정이요.

**동정** 영팔씨가 저 나무로 가구를 땀글어 갱생할 수 있고, 천여 명 수해 동포가 그 돈으로 구원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할아버님 유언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거북** 하 선생은 동포, 동포 하시지만, 동포엔 전재민과 수재민만 있답디까? 공장 주인두 있구, 상인두 있구, 광교장 같은 목사두 있구, 순사 형사두 있구, 또 나 같은 지주도 있소. 나는 이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조선 삼천만 동포들을 다같이 [E] 위해서 쓰구 싶단 말이요. (점점 흥분하여진다.) 목전에서 잠깐 고생하는 전재민 수재민들만이 아니라, 삼천리 우리 금수강산에 사는 삼천만 대한민족 전부를 위해서 쓰구 싶단 말이요. (하고 마루를 친다.)

**동정** (얼떨떨하여) 삼천만 전부들요?

**거북** 그렇소. (자기 웅변에 스스로 감격하여) 삼천만 전부를 위하는 길이란 뭐겠소? 독립이요. 자주독립이요. 이 독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들의 오남의 각하 한 분뿐이요. 그래 나는 오늘 오각하의 내임을 기회로 할아버님의 유언을 따라, 이 행자나무를 각하께 바치기루 했소.(하고 진땀을 씻는다.)

**동정** 저걸 갖다 뭘 하시게?

**거북** (더 한층 득양해지며) 이번 각하께서 서울 시외에다 별장을 지신다 하오. 난 저 나무를 삼분해서 밑둥은 화로를 땀글구, 가운데는 바둑판을 땀글구, 윗뚜머리하구, 가장군 장기를 땀글어서 각하의 사랑에다 헌납을 할 작정이요.

- 함세덕, 「고목(古木)」

41. 위 글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대적 배경과 어울리도록 ‘거북’과 ‘동정’의 의상을 준비해야겠어.
- ② ‘헌 옷, 이불’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거북’의 가난한 형편을 암시해야겠어.
- ③ ‘거북’의 집을 무대로 설정하고, ‘고목’을 표현할 수 있는 무대 장치를 준비해야겠어.
- ④ ‘동정’과 ‘거북’은 어조의 차이를 부각시켜 인물의 대립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 ⑤ ‘거북’ 역을 맡은 배우는 지시문의 내용을 충실히 연기하여 과장된 행동을 드러내야겠어.

42. ‘행자나무’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극적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장치이다.
- ② 특정한 시대적 모습을 제시하는 소재이다.
- ③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보여주기 위한 매개체이다.
- ④ 과거 사건을 환기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 ⑤ 인물 간 갈등을 드러내어 인물의 성향을 알 수 있게 한다.

43. 다음은 [A]~[E]에 나타난 ‘거북’의 말하기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상황 1 수재민 구제 협조 요청	[A]	문제 상황의 원인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거절의 단서로 삼고 있다. .... ㉠
	[B]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여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 ㉡
	[C]	자신의 신조를 단정적으로 제시하여, 거절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 ㉢
상황 2 행자나무 기부 제의	[D]	조상의 유언을 핑계 삼아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있다. .... ㉣
	[E]	그럴듯한 명분을 장황하게 내세워 상대를 어이없게 하고 있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통 여러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하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보다 극단적인 방향으로 ㉠ 흐르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집단의 최초 의견이 모험적인 경우는 더 모험적인 방향으로, 보수적인 경향이었던 더 보수적인 경향으로 결정되는 극단화되는 현상을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라 한다.

그렇다면 집단극화 현상이 ㉡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사회비교 이론’은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집단토의 중에 자기의 주장이 상대의 주장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좀 더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관람한 영화가 보통 정도는 되는 영화라고 생각했어도 ‘정말 형편 없었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더 많으면, 자신도 재미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친구들과보다 더 강화된 근거로 ㉢ 제시하여 집단으로부터 지지받는 입장을 밝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집단의 의견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

둘째, ‘설득주장 이론’은 집단 토의가 진행되면 새로운 정보나 의견을 접하게 되어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다양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에 구성원들이 솔깃하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집단 의견의 방향과 일치하면서 그럴듯한 주장이 제시되면 극단의 의견이 더 설득적이라 생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집단의 결정이 양극의 하나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정체성 이론'은 집단극화를 집단 규범에 동조하는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사회 정체성 수준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에 따라 내집단에서 생긴 의견 차이는 극소화되고, 집단의 규범에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어 집단 규범에 동조하는 행동을 한다. 즉, 내집단 구성원 간의 의견차는 극소화되는 반면 외집단과 내집단의 차이는 극대화되어 시간이 갈수록 내집단의 의견은 다른 집단의 의견과 차별화되고 외집단과는 다른 극단적인 방향으로 ㉠ 전환된다. 정치적 경향이 달랐던 두 정당이 시간이 지날수록 화합하지 못하고 견해차가 더 ㉡ 심화되는 것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집단극화 현상으로 인해 다른 대안의 고려나 다양한 사고 없이 집단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잘못된 의사 결정 과정을 '집단 사고'라 한다. 이러한 집단 사고의 부정적 경향성은 응집력이 높은 집단, 외부로부터의 의견 수렴이나 비판이 배제된 집단, 지나치게 권위적인 리더가 존재하는 집단,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없는 집단,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집단의 경우에 강화된다. 때문에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집단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4. 위 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집단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이 더욱 극단화될 수 있다.
  - ② 사람들에게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 ③ 사회 정체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합리적이다.
  - ④ 집단의 의견과 일치하는 주장은 반대 의견보다 더 설득적이다.
  - ⑤ 집단극화는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4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반응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소음 문제 때문에 평소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 아파트의 부녀회가 테니스장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고 주장하였다. 단지 내 테니스장을 이용했던 지역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은 여기에 반대했고 두 집단 간의 갈등은 깊어졌다. 부녀회에는 사용 시간의 변경이나 인원수 제한 등의 해결 방법을 찾자는 소수의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회의가 진행될수록 점점 테니스장을 없애자는 다수의 견해로 주장이 모아졌다.

- ① 소음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의견이 극단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겠군.
- ② 다른 집단과의 갈등 상황에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동화되는 경우가 생겼겠군.
- ③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설득력 있는 의견에 동의하는 현상이 생겼겠군.
- ④ 테니스장의 피해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접한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극단적 의견이 우세했겠군.
- ⑤ 시간이 지날수록 부녀회 내집단의 의견은 강화되나, 외집단과의 견해 차이는 더욱 커졌겠군.

46. <보기>는 [A]의 '집단 사고'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이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회의 주제 :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가>집단				<나>집단			
회의 전		회의 후		회의 전		회의 후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11	9	18	2	13	7	9	11

- ① <가>집단은 의사 결정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 장치가 필요하다.
- ② <가>집단은 의견을 일치시켜 집단 구성원의 응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③ <나>집단은 집단의 의견 차이를 극소화할 집단 규범을 정할 필요가 있다.
- ④ <나>집단은 <가>집단보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외부의 비판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 ⑤ <가>와 <나>집단은 모두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위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47. ㉠ ~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치우치는
- ② ㉡ : 일어나는
- ③ ㉢ : 들어
- ④ ㉣ : 바뀐다
- ⑤ ㉤ : 늘어나는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처럼 복잡한 생물도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된다. 생명체는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발전하며, 수정란에서 출발하여 세포의 증식, 분화, 형태 형성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을 ‘발생’이라 한다.

정자와 난자가 융합된 수정란의 형성 과정에서 난자는 모태가 된다. 난자는 ‘식물 반구’와 ‘동물 반구’로 이루어져 있다. 식물 반구는 양분 분자들이 농축된 난황이 있어 주로 저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며, 동물 반구는 세포의 소기관들이 많이 분포해 주로 대사 활동을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양서류의 경우에는 식물 반구의 피질에는 색소가 없고, 동물 반구의 피질에는 색소가 많으며, 내부 세포질에는 색소가 적게 분포되어 있어 수정란의 발생 과정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정자가 동물 반구로 진입해 융합되면, 색소들이 정자 진입지점 주변으로 모여 검은 점을 이룬다. 이 때, 동물 반구의 피질이 진입지점 방향으로 약 30°정도 회전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수정란 안쪽의 세포질은 피질과 함께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자 진입지점 반대쪽에 있는 동물 반구 경계 부위의 세포질 부위가 노출된다. 이 부분이 회색의 초승달 모양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을 ㉠ ‘회색신월환’이라고 한다.

[A] 1920년대 독일의 생물학자 슈페만은 도롱뇽의 알을 가지고 발생을 연구하였다. 그는 수정란 하나는 회색신월환이 양쪽으로 나뉘도록 묶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한쪽에만 있도록 묶었다. 그 결과 회색신월환이 둘로 나뉘어 포함된 수정란의 경우는 발생의 단계가 각각 진행되어 두 세포 모두가 정상적인 발생 과정을 보여주었으나, 나머지 회색신월환이 없이 묶인 것은 정상적인 발생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실험 결과는 회색신월환에 정상적인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포질이 재배열하면서 만들어진 회색신월환에는 포배기의 다음 단계가 시작하도록 세포 이동을 지시하는 요소가 있다. 이 회색신월환의 요소가 세포들에 이동 신호를 보내면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의 배엽층이 만들어지는 발생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내배엽은 소화기와 호흡기 등이 되고, 외배엽은 신경계와 피부 등이 된다. 또 중배엽은 혈관이나 뼈 등의 신체기관이 된다. 회색신월환은 단세포인 수정란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체기관의 조직으로 분화하는 계기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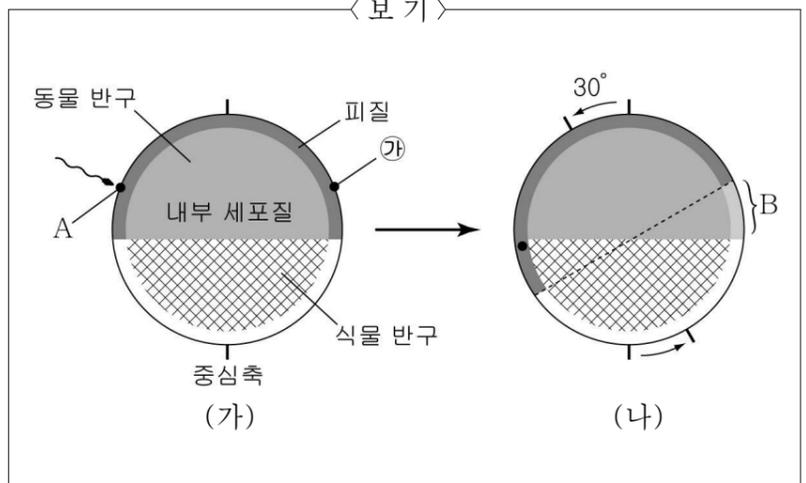
\* 포배기 : 수정란이 세포분열한 후 표면에 층을 만들어 배열하고 가운데 부분에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시기

48. 위 글로 미루어 답을 알 수 있는 질문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 보기 >
- ㄱ. 식물 반구와 동물 반구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 ㄴ. 각 배엽층의 세포는 어떤 기관으로 분화되는가?
  - ㄷ. 세포분열 과정에서 난황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 ㄹ. 양서류의 난자에 색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49. <보기>는 ㉠이 형성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위 글을 토대로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정자 진입지점이 A에서 ㉠로 바뀌면, 난자 피질의 회전 방향도 ㉠ 쪽으로 바뀔 것이다.
- ② A는 동물 반구의 피질 부분으로 배엽층을 형성하게 하는 신호를 보내는 곳이다.
- ③ B는 (가)의 수정 단계 이후 회색신월환이 형성된 부분이다.
- ④ B는 피질이 회전하여 동물 반구의 세포질 색소가 노출된 부분이다.
- ⑤ (가)에서 (나)로 진행되는 동안 식물 반구와 동물 반구 피질의 색소 분포가 변화한다.

50. [A]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상적인 발생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 ② 세포 소기관의 대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위는 어느 곳인가?
- ③ 발생에 필요한 세포질 요소가 수정란의 어느 부위에 분포하는가?
- ④ 정상적인 수정란에서 동물반구와 식물반구의 역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⑤ 수정란이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의 세포층을 형성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